

News & Issue

뉴스와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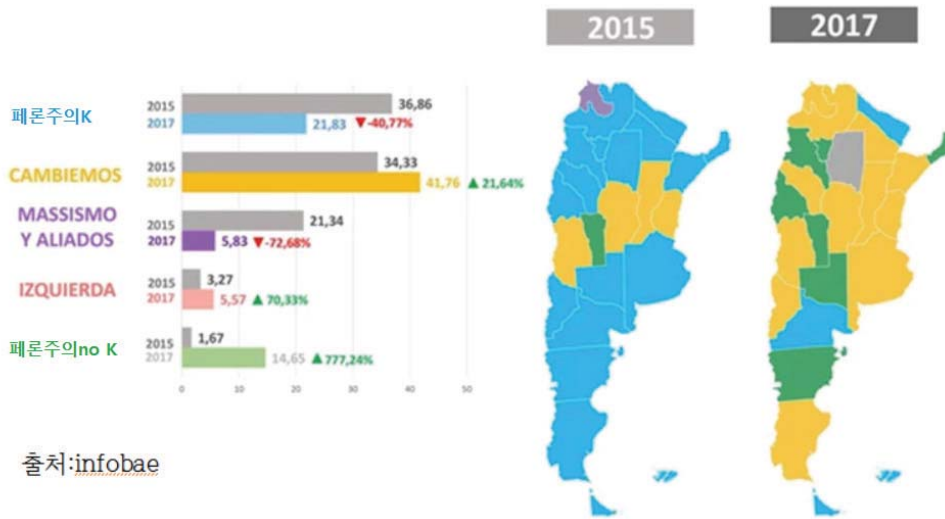
2017년 희망에 배팅한 아르헨티나의 유권자들

손혜헌

2017년 10월 22일 아르헨티나에서는 상원의원 24명과 그리고 하원의원 127명을 새롭게 선출하는 의회중간선거가 치러졌다.¹⁾ 이번 선거는 2015년 12월 10일 변화와 개혁을 정책 기조로 내세우며 출범한 마크리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중간평가임과 동시에 2019년 차기대선을 위한 전초전이였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정통성은 선거에서의 확실한 승리에서 나온다. 그러나 2015년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는 비록 결선투표에서 집권연당(FPV, 승리를 위한 전선) 후보였던 다니엘 시올리(Daniel Scioli)에게 승리하고 대통령에 당선되긴 했으나, 표 차이 불과 2.8%밖에 되지 않았고, 여소야대(하원 87석/257석, 상원 15석/72석) 상황으로 의회 내 정치적 입지가 매우 취약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집권연합인 캄비에모스(Cambiemos)가²⁾ 41.76%

- 1) 아르헨티나의 의회는 상·하원 양원제로 운영된다. 1994년 개정된 헌법에 따라 상원은 24개 선거구(23개 주와 1개의 연방수도)에서 각 3명씩 선출된 72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6년이다 (Art.50C.N./94). 상원은 2년 마다 의원의 1/3이 교체되며 재선 가능하다. 2001년부터는 최다 득표한 정당이 2개 의석을 차지하며, 나머지 한 석은 두 번째로 득표율이 높은 정당에게 돌아간다. 하원은 24개 선거구에서 선출된 총 25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4년이며 재선이 불가능하다. 하원은 2년 마다 의원의 1/2이 교체된다 (Art.50C.N./94). 하원의원은 비례대표제에 따라 인구 33,000명당 1명이 선출되며, 의석은 D'Hondt 방식에 따라 3%이상 득표한 정당에 배분한다. 지방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구에 상관없이 모든 선거구에 최소 5명의 의석이 배분된다.
- 2) 캄비에모스는 2015년 대선을 위해 공화주의 제안당(Pro)의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 시민연합(Coalicion Cívica ARI)의 엘리사 카리오(Elisa Carrió) 그리고 급진시민연합(Unión Cívica Radical)의 에르네스토 산스(Ernesto Sanz)간 계약으로 설립된 정치연합이다.



2015년과 2017년 아르헨티나 정치지도변화

의 지지율을 획득하고 24개 선거구 중 13곳을 장악함에 따라 아르헨티나의 정치지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뿐만 아니라 의회 내 집권당의 세력도 크게 확대됐다. 2015년과 비교하여 캄비에모스는 21.64%나 성장한 반면 제 1 야당인 키르츠네르주의 연합은 21.83%의 득표율에 그쳐 지지율이 무려 40.77%나 감소하였다. 승리한 선거구도 기존 16개에서 3개로 크게 줄었다. 이번 선거로 캄비에모스는 상원 10석과 하원 21석을 추가하여 각각 25석과 108석으로 확대했다. 물론 의회 정족수인 129석에는 못 미치지만, 야당이 대통령 거부권을 기각할 수 있는 2/3석의 방어에 실패하였고 특히 키르츠네르주의파가 과반수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집권당이 실용주의 성향의 비키르츠네르 세력과 정책 연대 형성할 경우 개혁법안 통과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8개의 새로운 지역구를 추가하여 기존 5개에서 13개로 확대함으로써 그동안 정부정책에 강경한 입장을 취해 왔던 페론주의 주지사들의 기세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키르츠네르 세력과의 협력은 국정운영 전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노조의 영향력을 통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략이다. 긴축정책과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불만이 증가하면 정부의 개혁추진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아르헨티나 정치에서 매우 흥미로운 선거였다. 그 이유는

첫째, 캄비에모스가 아르헨티나 5대 선거구³⁾ 모두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다. 5대 선거구는 유권자의 전체 61%가 집중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교체되는 하원 127석 중 71석을⁴⁾ 차지한다. 5대 지역을 모두 석권한 정당은 1985년 급진시민연합(Unión Radical Cívica 이후 UCR) 이후 캄비에모스가 32년 만에 처음이다. 캄비에모스가 구호로 외쳤던 ‘변화’가 당시 UCR의 ‘민주주의’ 만큼이나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강한 호소력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페론주의의 분열과 약화이다. 캄비에모스는 가장 많은 선거구에서 승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페론주의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살타, 차코, 라리오하, 산타크루즈 등에서 승리하였다. 특히 산타크루즈는 네스토르 키르츠네르(Nestor Kirchner)가 정치를 시작한 곳으로 키르츠네르주의의 정치적 고향이라 할 수 있으며, 현재 키르츠네르 네스토르 전 대통령의 동생인 알리시아 키르츠네르(Alicia Kirchenr)가 주지사로 있기 때문에 산타크루즈 에서의 패배는 키르츠네르파의 정치적 위상을 크게 약화시키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세 번째는 페론주의 내 비키르츠네르파의 부상이다. 2015년 비키르츠네르파는 1.67%를 득표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무려 777%나 증가한 14.65%를 획득했다. 비(非)키르츠네르파 부상의 비결은 바로 페론주의의 균열에 있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을 포함한 다수의 전 정부 인사들이 부패와 권력남용 혐의로 수사, 기소 및 구속되면서 청산해야 할 적폐의 대상으로 인식되었고 지방의 페론주의 리더들은 키르츠네르주의와 결별을 선언하고 독자 후보를 내세웠다. 그 전략은 성공적이었다. 키르츠네르주의에 실망한 페론주의 유권자들이 비키르츠네르파로 이동함에 따라 키르츠네르파의 표가 크게 감소했고 반면 비키르츠네르 표는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 이후 키르츠네르파로부터 이동한 지지자들을 묶어둘 수 있는 정체성 확립은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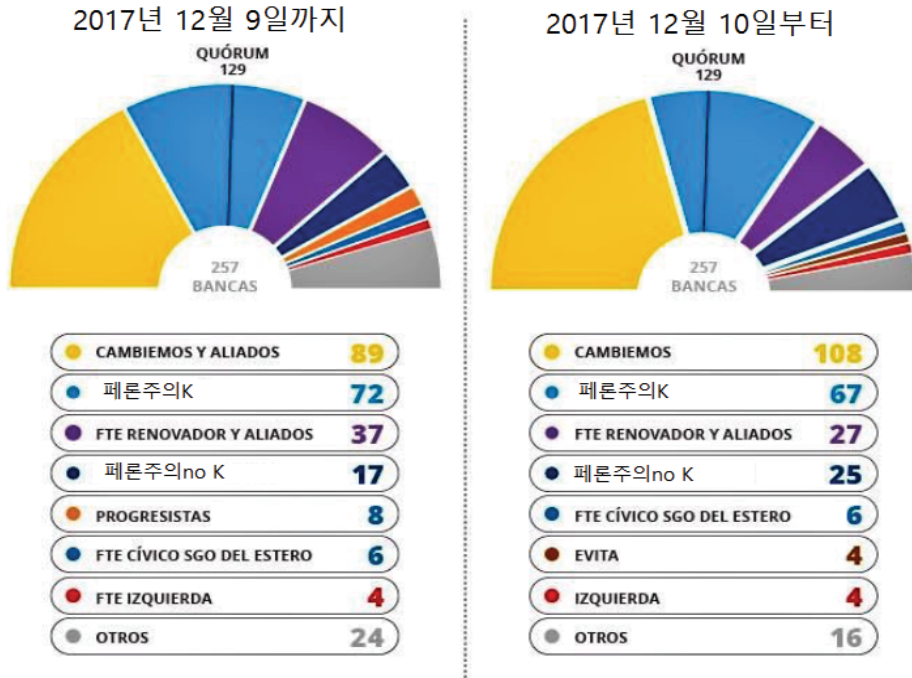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크리 정부 개혁정책의 최대 피해계층인 빈민과

3) 아르헨티나 전체 유권자의 61%는 부에노스아이레스(37%), 코르도바(8%), 산타페(8%), 부에노스아이레스시(7%) 그리고 멘도사(4%) 5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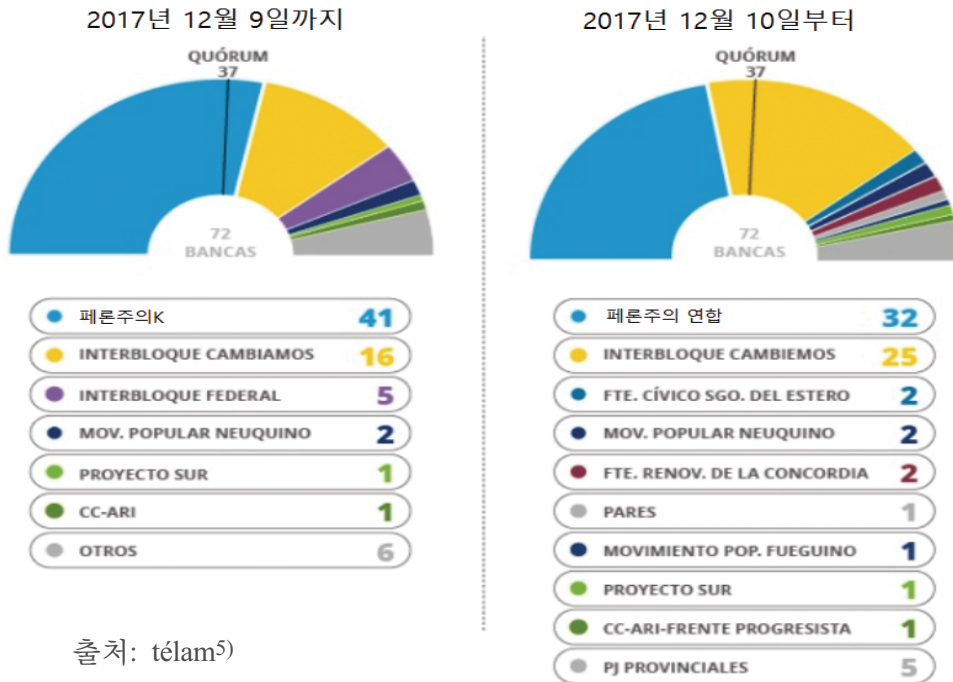
4) 부에노스아이레스는 35명, 부에노스아이레스시 13명, 포르도바 9명, 산타페 8명 그리고 멘도사 5명

5) <http://www.telam.com.ar/notas/201710/215262-cambiemos-gana-nueva-bancas-senado.html>

정당의 하원 구성



정당의 상원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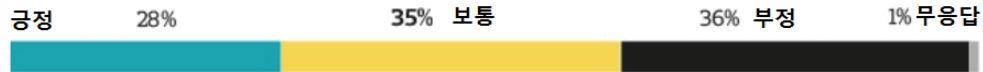
출처: télam⁵⁾

사회적 약자 층의 밀집지역이자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상원 의원 출마한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에서서의 캄비에모스의 승리와 키르츠네르주의 패배이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37.21%를 얻어 41.38%를 획득한 캄비에모스의 에스테반 불리치(Esteban Bullich) 전 교육 부장관에게 4%의 표차로 패했다. 그러나 선거법상 1위 정당에게 2석이 배정되고 나머지 1석은 2위 정당에게 배정됨에 따라 상원의원으로 정계복귀에는 성공했다. 선거에서 부정적 이미지 세탁을 위해 ‘승리를 위한 전선’(Frente para la Victoria)을 포기하고 시민연합(Unión Ciudadana)을 창당 하였으나, 키르츠네르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정당을 내세운 것은 전략적 실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기소 및 재판 중에 있는 선물시장에서 달러 저가 매각 지시, 특정 건설사 공공사업 대가 뇌물 수수 및 돈세탁, 가족 소유 호텔(Hotelsur) 회계비리, 아르헨티나 유대인 상조회(AMIA) 폭탄테러 은폐 혐의도 선거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집권 후 2년 간 마크리 정부는 경제정상화를 위해 이전 정부가 남겨 놓은 정치·경제적 유산을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경제부양과 재정적자 감소를 목적으로 단행했던 다양한 개혁조치는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실질임금감소를 초래했고 특히 평균 300%~500%에 달하는 공공요금 인상 폭탄은 격렬한 사회적 저항과 불만의 원인이 되었다. 경제지표도 예상보다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2016년 GDP 성장률은 -2.3%를 기록했다. 물가상승률은 40%를 상회했다. 실업률은 최고 9.3%에 달했다. 빈곤율은 32%로 증가했다. 경제활동 지수는 최대 -5.6%까지 감소하면서 실물경기가 크게 위축됐다. 임금인상률이 물가인상률 40%에 미치지 못하는 31%에 그치면서 실질임금은 크게 감소했고 구매력은 2016년 -7%로 크게 떨어졌다. 2017년 GDP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경기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물가상승률은 23%를 상회하고 있으며, 실업률도 8.7% 수준이다. 2017년 3분기 구매력은 -2.3%로 여전히 위축돼 있다. 구매력 상실은 특히 고용이 불안한 저소득층에게서 심각하다⁶⁾. 이렇듯 마크리 정부의

국가 미래 전망

현재



미래



출처: <http://www.lanacion.com.ar/2065938-fuerte-repunte-de-la-percepcion-del-gobierno-y-de-la-econom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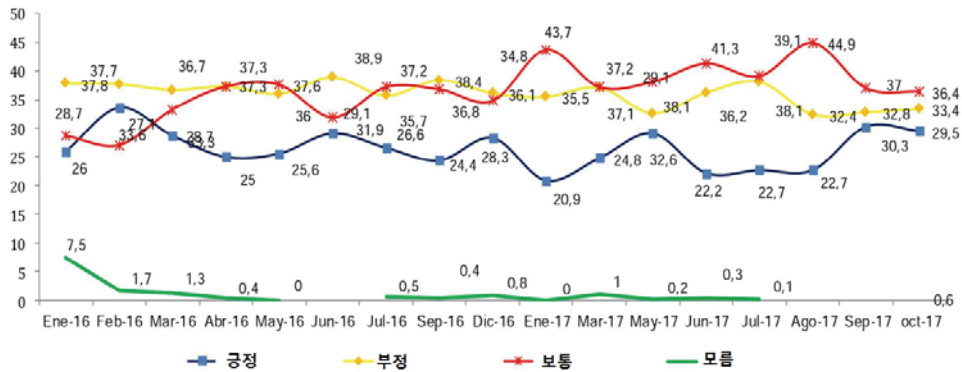
지난 2년간의 개혁정책은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신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흥하지 못했다. 지난 10월 선거 직전 여론기관인 OPSM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현재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36.4%는 부정적으로 그리고 29.5%는 긍정적으로 인식함으로써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마크리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46.7%가 긍정적 그리고 29.7%가 부정적이라고 평가함으로써 긍정적 인식이 높았다. 정부지지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찬성이 63.8% 그리고 반대가 34.3%로 대체로 정부를 지지했다.⁷⁾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개선될 것이라는 인식이 지금 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인식보다 훨씬 높게 났다. 보조금감축, 재정적자 축소, 임금인상 억제 등 혹독한 긴축정책과 구조조정정책은 불가인상 억제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이나 선거가 가장 중요한 의회주의 국가에서는 정권유지에 매우 인기가 없는 정책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비에모스는 어떻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분배와 사회정의를 외치며 과거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키르츠네르주의의 달콤한 유혹은 왜 유권자들에게 어필하지 못한 것일까?

키르츠네르주의 정부 12년 간 아르헨티나는 대외여건의 개선과 중국 붐의 효과로 높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분배정책으로 소비촉진, 고용확대, 평균소득 향상, 불평등 완화 등 상당한 사회적 성과를 이루었다.

6) https://elpais.com/economia/2017/10/19/actualidad/1508440676_071292.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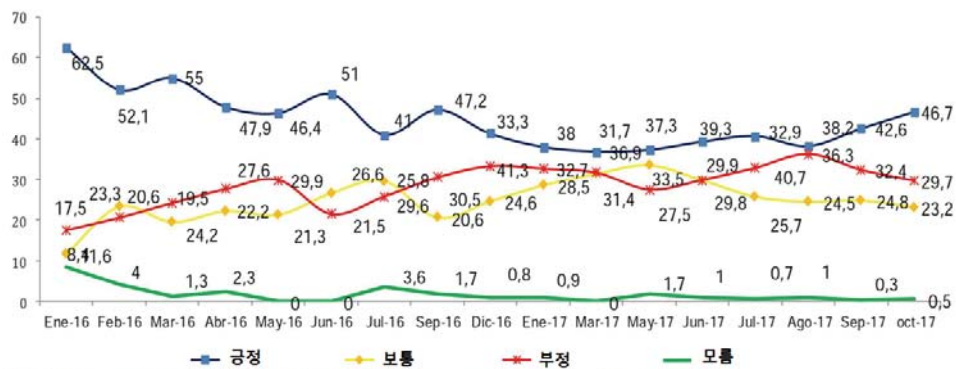
7) <http://www.grupolaprovincia.com/dice-macri-la-primera-encuesta-tras-elecciones/>

현재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국민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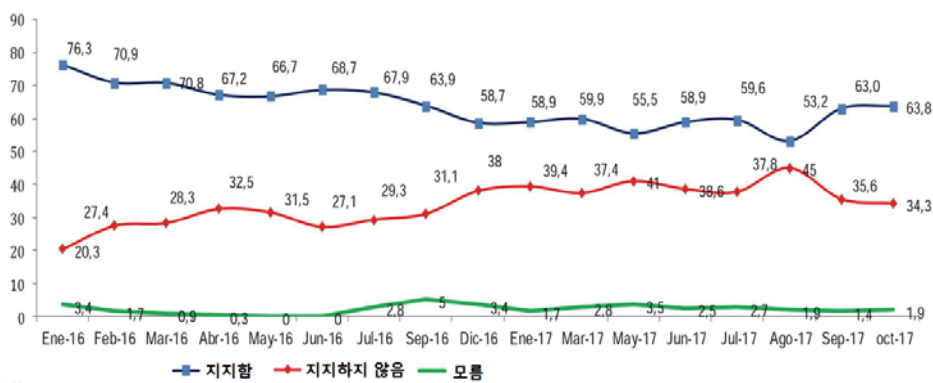
출처: <http://www.grupolaprovincia.com/dice-macri-la-primera-encuesta-tras-elecciones/>

마크리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출처: <http://www.grupolaprovincia.com/dice-macri-la-primera-encuesta-tras-elecciones/>

정부지지도



출처: <http://www.grupolaprovincia.com/dice-macri-la-primera-encuesta-tras-elecciones/>

그러나 대외여건 악화로 국가수입이 감소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소외되면서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로 경제는 파탄상태에 이르렀고 권력가

측근의 부정부패는 정치와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다. 결국 경제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했고 긴축과 구조조정 그리고 세계시장 복귀를 선택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녹록치 않았다. 인플레이션은 더 심해졌고, 삶의 질은 떨어졌다. 국민들은 국가의 정상화를 위해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였으나, 개혁의 경제적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자 정부의 개혁에 대한 불신감과 반감을 나타냈다.

마크리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현재의 불확실성을 건너 뛰고 과거의 논쟁에 집중하고 국가의 미래비전을 부각시켰다. 인플레이션, 긴축, 실업 등 현재의 경제문제를 선거의 결정적 요인으로 만들지 않았다. 과거 적폐청산과 변화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수단으로 언론과 매체를 이용했다. 캄비에모스는 현 전 정부에 대한 실망감과 반감이 극도로 팽배한 사회적 분위기를 이용하여 과거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변화와 개혁을 통해 전진할 것인지? 선택하도록 유도하였다. 마크리 대통령의 “마크리를 선택하면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⁸⁾ 주술은 10월 22일 선거에서 통했다. 아르헨티나의 유권자들은 과거가 아닌 미래 그리고 절망이 아닌 희망에 배팅했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마크리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특히 노동, 세제, 사회보장 등 3대 개혁안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전진을 위한 변화’를 구호로 선거에서 승리한 마크리 정부는 이번엔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과 발전방향에 대한 사회적 ‘타협과 합의’ 그리고 ‘단결’을 주문하고 있다. 민주화 시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던 스페인의 ‘몽클로아 협약’이 모델이 되고 있다. 정파나 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통치를 위한 기본적인 합의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10월 30일 각 주의 주지사, 기업, 노조, 야당, 사법부, 교육계 대표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경제개혁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고, 11월 9일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시장을 포함한 전국 23명의 주지사를 소집하였다. 그동안 정부의 개혁정책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 왔던 페론주의 주지사들은 선거 이후 정부개혁에 대해 완화된 입장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노조

8) Con Macri podemos estar mejor.

는 여전히 개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선거승리의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려고 한다. 이 기회가 곧 없어지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다. 따라서 개혁은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2018년 아르헨티나의 경제, 사회, 정치가 순항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0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예년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사회분위기와 선거 이후 정치적 안정 그리고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가 시장의 신뢰를 자극한다면 지금의 경제성장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고금리 정책과 임금인상억제 정책이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이번 선거에서 아르헨티나 유권자들은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희망’에 배팅했고 정부는 물론 전문가들은 핑크빛 전망을 내놓으며 국민들에게 고수익의 배당을 약속하고 있지만, 경제성장의 결실이 빠르게 가시화 되지 않는다면 2019년 마크리 정부의 대선향방도 낙관할 수만은 없다.

참고문헌

- Infobae, <https://www.infobae.com/elecciones-argentina-2017/>
 La Nación, <http://www.lanacion.com.ar/elecciones-2017-t57552>
 El País, https://elpais.com/tag/elecciones_argentina/a
<http://www.telam.com.ar/notas/201710/215262-cambiemos-gana-nueva-bancas-senado.html>
<http://www.grupolaprovincia.com/dice-macri-la-primera-encuesta-tras-elecciones/>
<http://www.lanacion.com.ar/2065938-fuerte-repunte-de-la-percepcion-del-gobierno-y-de-la-economia>
https://elpais.com/economia/2017/10/19/actualidad/1508440676_071292.html
 OPSM, 2017. MONITOR DE TENDENCIAS ECONÓMICAS Y SOCIALES
 EVALUACIÓN GENERAL DE EXPECTATIVAS SOCIO-ECONOMICAS, N° 8

손혜현 — 국립외교원 교수